

##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와 대응양상과의 관계 연구

원 정 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간의 건강도 다양해 지고 그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짐에 따라 건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의 영역은 더욱 구체화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간호교육도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을 통해 지식이나 간호개념의 이해 뿐 아니라 실제로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이 훈련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전인 간호 역할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여야한다(강현숙, 1998).

특히 건강 문제를 가진 인간을 돕는 행위의 학문인 간호학을 하는 간호대학생들은 청년기의 시기이므로 자아 의식이 발달하고, 사회적 통찰력을 갖게되는 시기로서 사회적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인식이 풍부해지는 사회적 성장 발달시기이다(김소야자, 1997). 이 시기의 간호대학생은 간호 현장에서 치료적 관계를 통해 돕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건강문제를 지닌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는 것은 필수적

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간호대학생들은 인간이해의 근본인 자기이해, 타인이해, 나아가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이지영, 1998),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Berne, 1961; 한기태, 1985).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자아상태의 구조와 기능분석을 통해 심적 에너지의 양과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이숙, 2001).

간호대학생들이 교과학습 과정 중에 임상 실습을 통해서 간호대학생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역할능력과 의료인의 역할 기대가 다르고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명백하지 않고, 기대와 어긋나는 실습 경험으로 위축 내지 좌절하게 되며 그들이 배운 간호의 가치와 이상이 실습 장소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전문인으로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상간호교육 과정에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것은 필수적이어야 하지만 그 양이 적당해야 한다(강현숙, 1989).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필요한 대처를 잘 할 수 없게 되거나 대응 능력이 없는 경우에 좌절, 불만, 실패감, 희망,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여 자신감을 잃고 우울에 빠지며 심한 경우 행동장애와 정신신체 장애를 유발하는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 불 건강을 초래하게 된다. 즉 이것

\* 경희대 간호과대학  
투고일 11.10      심사의뢰일 11.15      심사완료일 12.5

은 개인의 생활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며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McCranie & Lambert, 1987).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당면된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올바른 대응양상의 결여가 파생적인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제도나 정규교육 과정에는 청년기에 발달론적인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 배양에 대한 접근이나 사회적 기술발달의 함양 등과 같은 영역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강현숙, 1989).

지금까지의 자아상태의 연구에서 특히 간호대학생에 대한 논문은 자아상태와 자존감(이지영, 1998)의 연구가 있고, 간호사와 관련된 자아상태 연구는 이광자, 이숙(1992, 2000), 정광하(1999)의 논문이 있으며, 간호대학생에 실습에 관한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강현숙, 1989) 각각의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에 따른 스트레스 대응양상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교육이 인간 이해에 기초를 둔 자신의 자아상태를 깨달아 여러 가지 역할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이 간호의 지식이나 개념의 이해 뿐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 대처를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훈련시키고 전인간호 역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여 간호학 전반의 교육에 흥미와 자부심 및 만족감을 갖고 임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상자를 간호교과에 전공과목을 아직 배우지 않은 저학년과 전공과목의 이론과 실습교육에 접한 고학년으로 나누어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자아상태의 유형과 각자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양상이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인간 이해에 대한 간호교육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한 교과목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상호교류분석에서 본 자아상태의 유형과 대응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자아상태의 유형과 대응양상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두 군의 자아상태를 비교한다.
- 2) 두 군의 스트레스 대응양상을 비교한다.
- 3) 대상자의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대응양상을 비교한다.
- 4) 대상자의 자아상태와 대응양상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교류분석에서의 자아상태(Ego states)

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 : TA)이론은 1950년 대 미국의 정신의학자 Eric Berne (1910-1970)에 의해서 개발된 성격이론이다. 자아상태는 교류분석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개인 성격의 구조들로서, 인간은 모두 자신의 내부에 세 개의 자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고, 감정과 연관된 일련의 행동양식을 통합한 하나의 체계라고 정의되고 있다(우재현, 1993). 자아상태는 부모의 영향을 받은 부분인 어머니 자아상태(Parent ego state)인 P(통제적 어머니: Critical parent-CP 와 양육적 어머니: Nurturing parent - NP)가 있고, 사고하고 분석하여 어른으로서 반응하는 어른자아상태(Adult ego state)인 A, 그리고 어린이처럼 느낀 대로 반응하는 어린이 자아상태(Child ego state)인 C(자유로운 어린이: Free child - FC와 순응한 어린이: Adapted child - AC)로 구분할 수 있다(김홍용; 1994, 우재현; 1993, 1999).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류분석협회에서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Dusay(1977)가 개발한 50개 문항의 자아상태 분석 도구인 Ego-Gram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된 P(CP, NP), A, C(FC, AC)의 점수인 5가지 영역(CP, NP, A, FC, AC)으로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상태 수준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상태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 2) 대응양상(Coping style)

개인이 어떤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으로 손상 받지 않도록 안정성에 가해지는 중요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수단과 노력의 총계이고, 적응과정을 이루는 활동인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간주되는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의 요구와 발생하는 감정을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Folkman & Lazarus, 1984).

본 연구에서는 Folkman & Lazarus(1984)가 개발한 것을 한정석, 오가실(1990)이 번역, 수정한 대응양상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응양상의 사용이 많음을 의미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와 대응양상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K 간호대학의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지 회수 결과 총 285명중 응답이 미비한 3명을 제외한 282명(98.9 %)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자아상태(Ego-gram)

Ego-gram 설문지는 한국교류분석협회(1996)에서 표준화한 설문지 검사로 5개의 자아상태 마다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언제나 그렇다'에서 '좀처럼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자아상태의 점수는 0점에서 30점까지이며, 측정된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자아상태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우재현(1997)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이 .74이며, 이지영(1998)은 .71, 이숙(2000)은 .87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검증한 신뢰도는 .8379이었다.

#### 2) 대응양상(Coping style)

대응양상에 관한 측정 도구는 Folkman & Lazarus(1984)의 도구를 한정석, 오가실(1990)이 번역, 수정하여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한 33문항의 대응양상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에서 '아주 많이 사용한다'(4점)로 문제중심해결 8문항, 사회적 지지 탐색 7문항, 희망적 관

점 5문항, 긍정적 관점 4문항, 무관심 6문항, 긴장해소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나누었으며, 적극적 대처로는 문제중심해결과 사회적지지 탐색, 소극적 대처로는 희망적 관점, 무관심, 긍정적 관심, 긴장해소로 구분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심미경(1997)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이 .87, 조영숙(1999)은 .87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016이었다.

### 4.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02년 10월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14일간에 걸쳐 하였으며 1, 2학년을 저학년 집단144명으로, 3, 4학년을 고학년 집단 138명으로 실시하여 최종으로 사용된 자료는 282명이었다. 자신의 검사 결과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학번을 기입하고, 그 외의 인원은 무기명으로 실시하여 해당자에게는 추후 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자아상태와 대응양상은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자아상태 수준에 대한 스트레스 대응양상은 평균과 표준편차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두 군의 자아상태와 대응양상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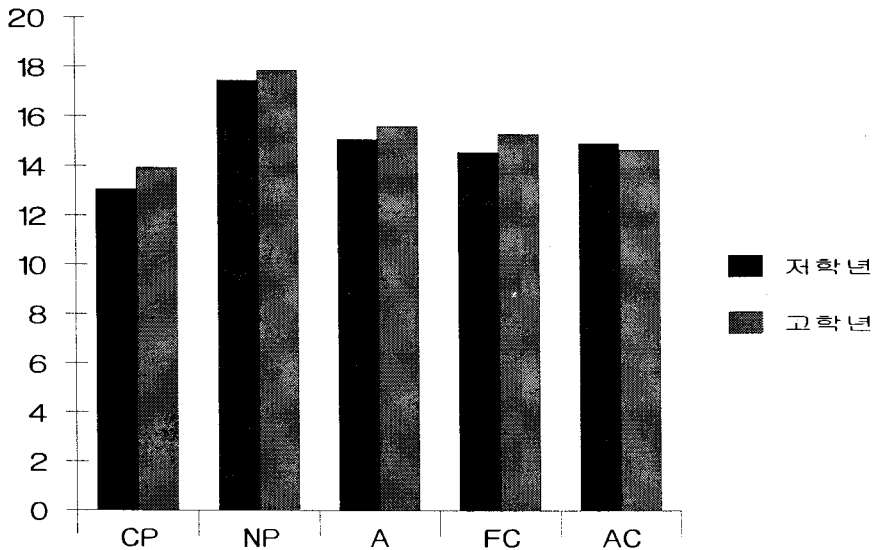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자아상태 유형 및 대응양상

<표 1> 두 군간의 자아상태의 유형의 비교

영역	지학년(n=144)    고큰년(n=138)		t	P
	Mean(SD)	Mean(SD)		
CP	13.04(3.06)	13.92(3.38)	-2.281	.023*
NP	17.45(3.99)	17.86(4.00)	-.863	.89
A	15.06(3.69)	15.60(3.75)	-1.186	.237
FC	14.56(4.16)	15.29(4.27)	-1.438	.152
AC	14.92(3.75)	14.65(3.75)	.600	.549

P < .05 \*    \*지학년(1, 2학년)    \*\*고학년(3, 4학년)



〈그림 1〉 두 군의 자아상태 유형의 그림(Ego-gram)

1) 두 군간의 자아상태의 유형의 비교

본 연구에서 〈그림 1〉의 Ego-gram에 나타난 간호대 학생의 자아상태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두 군 모두에서 NP를 정점으로 하여 A가 높고, AC로 내려가는 산형(山형)을 보였다. 또한 두 군간의 자아상태 유형의 비교에서 보면, CP에서 만이 고학년(13.92 ± 3.38)이 저학년(13.04 ± 3.06)보다 유의한 차이(t=2.281 p= .023)로 높게 나타내었다.

자아 상태의 심리적 에너지 수준에 있어서 각 자아상태의 점수는 0점에서 30점까지이므로 최고 점수를 30점으로 볼 때 15점을 평균점으로 보면, 두 군 모두에서 CP는 평균점 아래의 수준이며, NP는 평균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A는 평균점 수준이고 나머지 FC, AC는 평균점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을 나타내었다.

2) 두 군간의 대응양상의 비교

〈표 2〉에서 볼 때, 두 군간의 대응양상을 비교하면, 희망적 관점에서 유의한 차이(t=0.67, p=.05)로 평균점수가 고학년(2.41)보다 저학년(2.45)에서 높게 나타났고, 긴장해소에서는 고학년(2.43)이 저학년(2.33)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t=-2.18, p=.05)를 보였다.

저학년의 대응양상의 평균점수에서 긍정적 관심(2.72)이 가장 높았고, 문제중심해결(2.62), 사회적지

〈표 2〉 두 군간의 대응양상의 비교

영역	저학년	고학년	t	P
	(N=144)	(N=138)		
	mean(±SD)	mean(±SD)		
문제중심해결	2.62(.37)	2.70(.39)	-1.70	.090
희망적 관점	2.45(.44)	2.41(.48)	.67	.050*
무관심	2.21(.40)	2.23(.42)	-.31	.760
사회적 지지	2.61(.48)	2.63(.49)	-.26	.797
긍정적 관심	2.72(.48)	2.75(.52)	-.41	.686
긴장해소	2.33(.38)	2.43(.37)	-2.18	.030*
*적극적 대처	2.61(.36)	2.66(.36)	-1.14	.254
**소극적 대처	2.43(.29)	2.45(.28)	-.71	.478

\*P<.05      \* 문제중심해결, 사회적지지  
\*\*희망적 관점, 무관심, 긍정적 관심, 긴장해소

지(2.61), 희망적 관점 (2.41), 긴장해소(2.33), 무관심(2.21)의 순위로 낮게 나타났고, 고학년의 대응양상은 긍정적 관심(2.75)이 가장 높았고, 문제중심해결(2.70), 사회적지지(2.63), 긴장해소(2.43), 희망적 관점(2.41), 무관심(2.23)의 순위로 낮았다.

2.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대응양상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전체 학년의 간호대학생 대응양상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표 3〉 자아상태 수준별 집단에 따른 대응양상의 비교

자아상태 수준별집단	사례수 N	영역 Mean(SD)					
		1	2	3	4	5	6
CP 하위	209	2.61(.37)	2.40(.46)	2.23(.41)	2.59(.48)	2.70(.50)	2.34(.38)
CP 상위	70	2.83(.37)	2.53(.47)	2.21(.43)	2.74(.48)	2.87(.48)	2.51(.35)
t		-4.29	-2.08	.24	-2.20	-2.51	-3.29
P		.000***	.039*	.810	.029*	.013*	.001***
NP 하위	86	2.55(.36)	2.39(.41)	2.21(.41)	2.46(.53)	2.54(.50)	2.29(.39)
NP 상위	193	2.72(.39)	2.46(.48)	2.23(.42)	2.70(.45)	2.83(.48)	2.43(.37)
t		-3.49	-1.17	-.51	-3.92	-4.50	-2.92
P		.001***	.242	.610	.000***	.000***	.004**
A 하위	152	2.55(.37)	2.42(.48)	2.25(.41)	2.60(.48)	2.64(.49)	2.32(.38)
A 상위	123	2.82(.35)	2.45(.44)	2.21(.42)	2.65(.49)	2.87(.49)	2.48(.37)
t		-6.22	-.44	.79	-.82	-3.86	-3.59
P		.000***	.658	.431	.411	.000***	.000***
FC 하위	156	2.65(.38)	2.38(.46)	2.19(.41)	2.56(.50)	2.66(.49)	2.29(.37)
FC 상위	121	2.68(.39)	2.51(.45)	2.28(.41)	2.71(.46)	2.85(.50)	2.51(.37)
t		-.67	-2.28	-1.81	-2.70	-3.21	-4.79
P		.504	.023*	.071	.007**	.001***	.000***
AC 하위	170	2.64(.40)	2.34(.42)	2.16(.39)	2.61(.49)	2.74(.50)	2.39(.38)
AC 상위	107	2.71(.36)	2.58(.49)	2.33(.44)	2.65(.49)	2.75(.51)	2.38(.40)
t		-1.40	-4.21	-3.45	-.60	-.18	.25
P		.163	.000***	.001***	.554	.861	.803

\* P<.05    \*\* P<.01    \*\*\* P<.001

\* 대응양상의 영역 : 1.문제중심해결    2.희망적 관점    3.무관심    4.사회적지지 탐색    5.긍정적 관심    6.긴장 해소

자아상태의 심리적 에너지 수준의 최고 점수를 30점으로 볼 때, 수준 별 집단을 평균점(15점)을 중심으로 자아상태 수준이 높은 학생을 상위집단으로 낮은 학생을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CP유형의 수준에서 보면, 무관심의 대응양상을 제외한 모두에서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문제중심 해결(p=.000), 희망적 관점(p=.039), 사회적지지 탐색(p=.029), 긍정적 관심(p=.013), 긴장 해소(p=.001)에서 각각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NP유형의 수준에서 보면, 대응양상의 희망적 관점과 무관심을 제외한 나머지 자아상태의 상위수준 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문제중심해결(p=.001), 사회적지지 탐색(p=.000), 긍정적 관심(p=.000), 긴장 해소(p=.004)에서 각각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A유형의 수준에서 보면, 대응양상의 유형 중 희망적 관점, 무관심, 사회적지지 탐색을 제외한 모두에서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문제중심해결

(p=.000), 긍정적 관심(p=.000), 긴장 해소(p=.000)에서 각각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FC유형의 수준에서 보면, 대응양상의 문제중심해결과 무관심을 제외한 나머지 자아상태의 상위수준 집단이 하위집단보다 희망적 관점(p=.001), 사회적지지 탐색(p=.000), 긍정적 관심(p=.000), 긴장 해소(p=.004)에서 각각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AC유형의 수준에서 보면, 대응양상의 유형에서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희망적 관점(p=.000), 무관심(p=.001)에서만 각각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 3. 자아상태와 대응양상과의 상관관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상태의 영역별 상관관계를 보면, FC와 AC의 상관만 유의하지 않았고, FC와 AC( $r=.140, p=.05$ )간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

〈표 4〉 전체학년의 자아상태와 대응양상의 상관관계

	자아상태					대응양상					
	CP	NP	A	FC	AC	1	2	3	4	5	6
CP	1	.315***	.493***	.498***	.247***	.257***	.104	.004	.192***	.201***	.220***
NP		1	.295***	.381***	.225***	.206***	.075	.002	.234***	.331***	.084
A			1	.245***	.140*	.452***	.028	-.054	.111	.299***	.268***
FC				1	.009	.138*	.190***	.182**	.230***	.280***	.347***
AC					1	.127*	.220***	.183**	.044	.026	-.031

\*P<.05    \*\*P<.01    \*\*\*P<.001

대응양상의 영역 : 1.문제중심해결 2.회망적 관점 3.무관심 4.사회적지지 탐색 5.긍정적 관심 6.긴장 해소

고, 그 외의 모든 자아상태 영역의 각각의 관계에서 P<.001수준으로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전체 학년의 자아상태와 대응양상의 상관의 경우, 문제중심해결영역에서는 A가 가장 높고 CP, NP순으로 P<.001수준에서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고, FC, AC는 P<.05의 수준에서, 회망적 관점에서는 FC, AC에서 만 P<.001의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무관심 영역에서도 FC, AC에서 만 P<.05의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지지 탐색에서는 NP, FC, CP에서만 P<.001의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고, 긍정적 관심 영역에서는 NP, A, FC, CP 순으로, 긴장해소 영역에서는 FC, A, CP 순으로 P<.001수준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여 주었다.

#### IV.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아상태의 유형은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서 자아상태 특성의 山형을 나타낸 것을 볼 때, 우재현(1999)은 기본적 인생태도와 전형적 이고그램에서 NP를 피크로 산형을 보이는 경우는 '자타긍정'을 나타내는 이고그램의 특성을 가졌으며, "나도 타인도 모두 OK이다"라는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한 이것은 P나 A의 기능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다른 사람과의 따뜻한 교류가 행해지기 쉽고 FC도 어느 정도 높으므로 자신을 적절히 표현 할 수 있어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기 쉬운 자아상태라고 하였다. King(1985)도 자타긍정형이 가장 건강하고 긍정적 정서를 보인다고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밝힌바 있다.

특히 이지영(1998)의 연구에 의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에서 각 학년이 동일하게 NP가 가장 높아 양육적이고, 보호적이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성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같이 전학년에서 NP가 높은 것에

특성은 간호대학생은 특히 모성적, 온화적, 헌신적, 동정적인 성격으로 환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NP의 성향이 강한 것이므로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유의하게 CP가 더 높은 것을 볼 때,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항상 옳다고 여기고 양보하려 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사회질서 유지능력과 이상추구와 양심이 있는 특성(이 숙, 2000)이 고학년에게 차이 있게 높게 나타나 보인 것이 특이한 양상이다. 이지영(1998)의 연구에서도 유의하지는 않지만 4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점점 CP가 높아진 것과 일치할 보였다.

본 연구의 자아상태의 에너지 수준을 볼 때, NP와 A만 평균점보다 우위로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들은 모두 평균점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본 연구 학생들의 에너지 수준은 평균의 보통 상태로 해석된다. 또한 전체학년에 CP점수가 FC, AC보다도 낮게 나왔고 특히 저학년에서는 FC보다 AC가 높게 나타나 이숙(2000)의 간호사의 자아상태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을 볼 수 있다. 이지영(1998)의 간호대학생 연구의 경우도 FC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고, AC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의 고학년의 경우와 일치하여 바람직한 현상을 보였으며, 저학년과는 반대현상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숙(2000)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돌봄을 전공하며 대상자 중심의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의 효과로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졸업 후 간호실무 규칙의 수행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인간이해의 교육과 심리적 에너지 수준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우재현(1997)은 CP와 A가 높으면서 FC가 높은 것은 건강하지만 FC만 높을 경우에 자기중심적이고 대인관계에서 협조하는 면이 부족하여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고 한 것을 볼 때, 본 연구에서 A가 평균 15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FC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한 자아상태를 보인 것으로 사려된다.

또 A가 낮고 NP가 높은 것을 볼 때, NP가 높으면 모성적이고, 온화하며 헌신적, 동정적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았을 때 거절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고, A가 낮으므로 이성적, 합리적, 현실적, 냉정, 솔직, 결단 등의 특성이 약하여 이런 자아상태는 일에 당면되면 계획성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우재현, 1999).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간호대학생들이 간호 대상자의 건강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측된다.

특히 본 연구의 자아상태의 모든 유형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은 경향인데 비해 AC의 수준만 고학년에서 낮은 양상을 볼 때, 자율성이 결여되고 욕구불만과 열등감이 생기고 당면된 상황을 자기 요구의 감정대로 조절하려는 불건강한 부분(이광자, 1992)인 AC의 특성이 고학년으로 가면서 간호학의 전공과목을 학습하고 임상실습을 통해 바람직하게 변화된 것으로 예측되어 바람직한 결과라고 본다.

또한 저학년과 고학년의 대응양상의 차이점정에서 보면, 두 군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희망적 관점을 제외한 모든 대응양상 영역에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Moos와 Billings(1982)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노력이 투여되는 방식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문제중심해결적 대응과 사회적지지 탐색의 추구를 적극적 대응이라고 하였고,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노력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등 내부로 투여되는 정서 중심적 대응과 소망적 사고를 소극적 대응으로 구분한다고 한 것을 볼 때, 저학년보다 고학년 모두에서 적극적 대응인 문제중심해결과 사회적지지 방법의 대응이 높았고, 소극적 대응양상인 희망적 관점이 고학년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고학년의 대응양상은 건설적이고 건전한 현상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특히 이은경(1998)은 대응 방법이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이나 전략이라고 한 것을 볼 때, 본 연구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 소극적 대처와 적극적 대처 모두에서 높아 모든 유형의 대응양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강현숙(1989)연구에서 간호학 전공에 만족한 경우가 적극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보고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 갈수록 간호 전공 교육과 임상실습을 거치게 되고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학습되고, 학습한 내용을 일상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스트레스 대응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려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상태 수준 별 집단에 따른 스트레스 대응양상을 보면, 자아상태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대응양상의 점수가 모든 영역에서 높았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많았다.

먼저 CP의 상, 하위 수준 별 집단에서 보면, CP에서는 무관심, NP에서는 희망적 관점과 무관심을 제외한 모든 대응양상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P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기고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특성(Dusay, 1977)을 갖고 있고, NP는 공감, 동정, 보호, 수용 등 타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돌봄의 부분이며 타인에 대해 수용적, 동정적이고 애정이 깊으며, 지나칠 경우 과도한 친절로 상대의 독립심이나 자랑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이숙, 2000). 특히 CP는 남성성을, NP는 여성성의 상징을 가지므로 이들 두 요소가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발전되는 것(제석봉, 1999)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응양상에 무관심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CP와 NP의 수준 별 집단에서 보면 문제중심해결과 사회적지지 탐색인 적극적 대응인 두 가지 양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어, 전체 학생의 CP와 NP의 영역은 좌절이나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인 적극적 대응방법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A의 수준 별 집단에서는 문제중심해결, 긍정적 관심, 긴장해소의 대응양상에서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인데, A유형은 사물을 추리하고 자극을 평가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미래를 위한 처방을 내는 특성이 있으며, 다른 자아상태와는 달리 하나의 사고적 개념으로 P와 C 자료의 용인과 거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효율적 의사소통이나 적응의 관건은 A의 효과적 기능 여부에 달려 있는 특성(김성태, 이성택, 1982)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원숙하고 바람직한 자아기능인 A유형의 유의한 차이는 바람직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FC는 특성은 제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생김새로의 자아상태로 자아중심적, 쾌락추구적인 어린이와 같

은 행동을 표현하고, 반면에 자신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광자, 이숙, 1992)으로써, 본 연구에서 문제중심해결과 무관심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아상태의 상, 하위의 수준별 학생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로 좌절이나 저해요소를 극복하지 못하는 (Moos & Billings, 1982)소극적인 행동인 FC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AC에서 다른 대응양상과 비교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상, 하위 수준간 희망적 관점과 무관심의 대응양상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인데, 이것은 AC가 자신의 참된 감정이나 욕구를 누르고 부모나 권위자의 기대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성향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타협해 버리거나 자발성 없이 의존하기 쉬운 성향(우재현, 1994; 이지영, 1998; 이숙, 2001)이 특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아상태의 특성들이 각 유형의 하위집단과 상위집단에서 많은 영역의 대응양상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방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위집단과 상위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자아상태의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로 자아상태의 특색과 자아상태를 활성화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자신의 대응방법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자아상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아상태와 대응양상의 상관관계를 보면, 문제중심해결 영역은 사실에 입각해서 사물을 판단하는 부분으로 현실을 객관시하는 A와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 $r=.45$ )을 나타낸 것을 볼 때, 이 숙(2000)은 A는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하고 A가 우위일 경우 P의 편견이나 C의 감정이 통제되며, 통합적인 적응력과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고 보고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해결에 문제중심해결 대응방법에 모든 자아상태의 유형이 관계가 있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희망적 관점과 무관심의 대응양상은 자아상태의 모든 유형 중 자유스러운 어린이의 특성인 FC와 순응한 어린이의 AC에서만 정적인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를 볼 때 우재현(1997)은 FC는 부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며 본능적, 충동적 반응으로 항상성 원리에 입각한 자연 그대로의 쾌감을 추구하고, 상대방의 기대에 맞도록 항상 주위에 마음을 쓰며 자유로운 감정을 억제하는

AC를 어린이 자아상태라고 하였고, 김정희(1987)는 희망적 관점과 무관심 영역을 문제를 피하거나 방어하는 것인 소극적 대처방법이라고 정의한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희망적 관점과 무관심 영역은 소극적 대응의 특성을 가지면서 C유형의 자아상태와 유의한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을 나타냈다.

사회적지지 탐색의 대응과 자아상태의 관계를 보면, CP와 NP의 유형에서 높은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볼 때 Moos와 Billings(1982)는 대처하는 노력이 투여되는 방식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하는데 즉 대처하는 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적극적 행동에 사회적지지 탐색과 문제중심해결을 포함시킨 것을 보면, CP와 함께 NP가 모두 문제중심 영역에서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것과 같이 적극적 대응행동에 사회적지지 탐색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적 관심 영역에서 AC만을 제외한 모든 자아상태 영역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긴장해소의 영역에서는 NP와 AC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냄을 볼 때, 이기춘(1991)은 AC는 상대방의 기대에 맞도록 항상 주위에 마음을 쓰며 자유로운 감정을 억제하며, 행동은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우며 주위에 순응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감정면에서는 공격적, 반항적인 부분도 있다고 그 특성을 말하였다.

이 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중 소극적인 적응형태인 긍정적 관심과 긴장해소의 대응의 변화를 위해서는 AC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려된다. 간호교육의 효과가 AC와 FC의 어느 부분을 변화시키며, 간호대학생의 C유형의 자아상태에 따른 간호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김현수(1988)는 에고그램의 변동에 있어서 높은 것을 축소시키는 것보다 낮은 부위를 신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활용 면에서 더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호교류분석 이론에 따라 간호대학생 자신의 스트레스 대응을 위한 관리를 통한 FC의 향상 및 A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상태를 건강하게 향상시키며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극복해 나가는 효율적인 대응방법을 위한 간호효과 과정에서 인간 이해의 교육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내용 보완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상호교류분석에서 본 자아상태의 유형과 스트레스 대응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자아상태의 유형과 스트레스 대응양상을 규명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서울에 위치한 K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전학년을 대상으로 2002년 9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1, 2학년의 144명을 저학년으로, 3, 4학년 138명을 고학년으로 모두 282명이 대상이다. 교류분석에서의 자아상태는 Dusay (1997)가 개발한 50개 문항으로 Ego-gram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대응양상은 Folkman & Lazarus(1984)가 개발한 것을 한정석, 오가일(1990)이 번역, 수정한 척도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 및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간호대학생 고학년과 저학년의 자아상태는 두 군 모두에서 NP를 정점으로 하여 A가 높고, AC로 내려가는 산형(山形)을 보였다. 두 군간의 자아상태 유형의 비교에서 보면, CP에서 만이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유의한 차이( $t=2.28$   $p=.023$ )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 상태의 심리적 에너지 수준에서는 평균점 수준을 나타내었다.
- 2)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응양상에서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서 긍정적 관심이 가장 높았고, 문제 중심해결, 사회적지지 탐색, 희망적 관점, 긴장 해소, 무관심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희망적 관점( $t=.67$ ,  $p=.05$ ), 긴장 해소( $t=-2.16$ ,  $p=.03$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 자아상태 수준 별 간호대학생의 하위집단과 상위집단에 따른 대응양상과의 차이검증에서, CP유형은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대응양상 영역 중 문제중심해결, 희망적 관점, 사회적지지 탐색, 긍정적 관심, 긴장 해소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NP유형에서는 문제중심해결, 사회적지지 탐색, 긍정적 관심, 긴장 해소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A유형에서는 문제중심해결, 긍정적 관심, 긴장해소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FC유형에서는 희망적 관점, 사회적지지 탐색, 긍정적 관심, 긴장해소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AC유형의 수준에서는 희망적 관점, 무관심에서 모두가

각각  $p<.05$  유의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4) 자아상태의 영역별 상관관계를 보면, FC와 AC의 상관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관계에서  $P=.001$ 수준에서 각각 정적인 상관을 보여 주었다. 자아상태와 대응양상과의 관계에서, CP는 문제중심해결, 긴장해소, 사회적지지 탐색 순으로, NP는 긍정적 관심, 사회적지지 탐색, 문제중심해결의 순으로, A는 문제중심해결, 긍정적 관심, 긴장해소의 순으로, FC는 긴장해소, 긍정적 관심, 사회적지지 탐색, 무관심, 문제중심해결의 순으로, AC는 희망적 관점, 무관심, 문제중심해결의 순으로, 모두에서  $p<.05$  유의수준 이상으로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 2.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대상자가 특정대상에 국한된 것이므로 연구결과에 따른 반복연구나 대상을 달리 확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 2)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상태 유형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간호학의 학습을 통한 이론과 실습의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자아상태와 대응양상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기 위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3) 건강한 자아상태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극복해 나가는 효율적인 대응방법을 위한 간호교과과정에서 인간 이해의 교육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내용 보완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강현숙 (1989). 임상실습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응양상에 관한 연구. *생활간호*, 16(7).  
 김소아자 (1997).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 : 수문사  
 김현수 (1988). *교류분석*. 서울, 민지사.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양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홍용 (1994). *성격개조를 위한 교류분석 프로그램*. 대구 : 영한문화사  
 심미경 (1997).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대처유형,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7(3).

- 윤정희 (1994). 뇌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응양상.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재현 (1999). 교류분석프로그램. 대구 : 정암서원
- 우재현 (1997). 교류분석의 성격 요인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사학위논문.
- 우재현 역 (1993). 이고그램. 대구, 정암서원
- 우재현 (1999). 임상교류분석(TA) 프로그램. 서울 : 정암서원
- 이광자 (1992). 상호교류분석의 이론 및 기술. 1992년도 보수교육보고서, 287-300.
- 이광자, 이 숙 (1992). 간호사의 자아상태에 관한 연구-교류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연구소, 50, 195-205.
- 이 숙 (2000). 임상간호사의 자아상태, 대인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상호교류분석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9(3).
- 이지영 (1996). 잠재력개발 집단상담이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국군간호사관학교논문집, 15, 177-195
- 이지영 (1998). Ego-gram에 나타난 자아상태와 자아존중과의 관계-간호사관생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6(2), 206-216.
- 이정자 (1996). TA생활각본 분석 집단상담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 이기춘 (1991). 교류분석에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 신학적 시각-.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출판부.
- 정광하 (1999). 에고그램에 나타난 간호사의 자아상태와 인간관계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 (1999). TA성격의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성장상담 연구소.
- 조영숙 (1999). 임상간호사의 소진경험과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정석, 오가실 (1990). 만성 질환자를 가진 어머니의 비통감과 이에 대응하는 정도에 관한연구. 대한간호, 29(4), 77-87.
- 최영희 (1999). 내과계 입원 환자의 건강인간의 정신건강과 생활사건 스트레스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illings, A. G., Moos, R. H. (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4).
- Bell, J. M. (1977). Stress life events and coping methods in mental illness and wellness behavior. *Nursing Research*, 26(2), 136-141
- Berne, E (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New York : Grove Press,
- Dusay, J. M. (1977). *Ego-gram*, Harper & Raw, Co., London.
- Jalowiec, A. & Powers, M. J. (1980). Stress and coping in hypertensive and emergency room patients. *Nursing Research*, 30, 10-14
- Joanne, H. V. (1985). How to reduce stress and avoid burnout, *Nursing*, 15 : 7(13), 1985.
- King, L., KoKkelenberg (1985). Competitive structure their development and diagnosi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15, 263-268.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 Co., New York.
- Lipowski, Z. J. (1895). *Psychosomatic medicine in the seventies*, An Overview, Psychosomatic Medicine and Liaison Psychiatry. N.Y. & London : Plenum Medical Book co., 71-90
- McCranie, E., Lambert, V. & Lambeert, C. (1987). Work stress, hardiness and burnout among hospital staff nurses, *Nursing Research*, 36(6), 374-378.
- Moos, R. H. (1974). *System for th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of human environment : Issues in Social Ecology*. California : National Press Books.
- Moos와 Billings (198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In L. Goldberger & Breznits, S. (Ed.). New York: Free Press.

- Abstract -

## Study on the Ego states and Coping Style of Nursing Students

Won, Jeong Sook\*

\*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of ego states and stress coping style on female college students who are in the course of nursing study. This study is performed in the view of Transactional Analysis and designed to scrutinize descrip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type of ego states and stress coping style. The subject is consists of 144 freshmen and sophomore, 138 junior and senior students group, who are students of K nursing college located in Seoul. The sampling investigation period is on Sept. 14, 2002 to Oct. 26, 2002. The measuring instrument used for Transactional Analysis ego state is 50 items Ego-gram research paper devised by Dusay(1997). For studying coping stlye, Folkman & Lazarus's measurement(1984) was adopted, which is translated and modified by Han, and Oh,(1990). Statistic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generated by using SPSS PC+,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In the type of ego states on both groups(lower group : freshmen, sophomore upper group : junior, senior) indicated the arithmetic apex NP(maximum value), then the point A was high and the data made a down slope to point AC. In the comparison to type of ego states between two groups, only at point CP, the data value of upper year students represented higher than that of lower year ones by C( $t=2.28$ ,  $p=.023$ ). In the psychological energy level of ego states, both groups indicated average level.
- 2) Stress coping style of whole students were highly and affirmatively dedicated to research. Consecutive consequences follow like this(high to low) : the central point of problem, search for social support, hopeful aspect and indifference. Especially hopeful

aspect( $t=.67$ ,  $p=.05$ ), relaxation of tension( $t=-2.16$ ,  $p=.03$ ) made significant difference each other in the view of arithmetic calculation

- 3) While verifying coping style in terms of ego states level between lower and upper students group, In type CP, high level ego states group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 on stress coping style area than low leveled group and made such sequences as the central point of problem, hopeful aspect, search for social support, positive interest and relaxation of tension. In type NP, sequences such as the central point of problem, search for social support, positive interest and relaxation of tension were emerged with little differences. In type A, the central point of problem, positive interest and relaxation of tension. In type FC, hopeful aspect, search for social support, positive interest and relaxation of tension. In type AC, hopeful aspect and indifference were derived significantly different( $p<.05$ ).
- 4) In the aspect of relation between ego states and coping style, type CP presented the central point of problem and relaxation of tension, type NP presented positive interest, search for social support and the central point of problem, type A showed the central point of problem, positive interest and relaxation of tension, type FC showed relaxation of tension, positive interest, search for social support, indifference and the central point of problem, type AC showed hopeful aspect, indifference and the central point of problem. All the sequence shown above had high-to-low procedure and represented static relations each other( $p<.05$ ).

Key words : Ego states, Coping style